논어 17편 양화 7장 · 원문·풀이

佛肹召，子欲往。子路曰：「昔者由也聞諸夫子曰：『親於其身爲不善者，君子不入也。』佛肹以中牟畔，子之往也，如之何？」子曰：「然，有是言也。不曰堅乎？磨而不磷。不曰白乎？涅而不緇。吾豈匏瓜也哉？焉能繫而不食！」

독음 · 필힐소 자욕왕 자로왈 석자유야문저부자왈 친어기신위불선자 군자불입야 필힐이중모반 자지왕야 여지하 자왈 연 유시언야 불왈견호 마이불린 불왈백호 녈이불치 오기포과야재 언능계이불식

쉬운 풀이(요약) · 필힐의 부름에 가려 하자 자로가 원칙과 어긋난다고 물었다. 공자는 단단하고 흰 것은 갈고 물들여도 변하지 않으며, 자신도 쓰임 없이 매달린 박처럼 살 수는 없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佛 부처 불 불 / 肹 울릴 힐 / 召 부를 소 소 / 子 아들 자

欲 욕심낼 욕 욕 / 往 갈 왕 왕 / 路 길 로 로 / 曰 가로 왈

昔 옛 석 석 / 者 놈 자 / 由 말미암을 유 유 / 也 어조사 야

聞 들을 문 문 / 諸 모든 제 제 / 夫 지아비 부 부 / 親 사랑할 친 친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其 그 기 / 身 몸 신 신 / 爲 할 위

不 아닐 불 / 善 착할 선 선 / 君 임금 군 / 入 들 입 입

以 써 이 이 / 中 가운데 중 중 / 牟 소 우는 소리 모 모 / 畔 지경 반 반

之 갈 지 / 如 같을 여 여 / 何 어찌 하 하 / 然 불사를 연 연

有 있을 유 / 是 이 시 시 / 言 말씀 언 언 / 堅 굳을 견 견

乎 어조사 호 / 磨 갈 마 마 / 而 말이을 이 / 磷 돌 을 틈물이 흐르는 모양 린 린

白 흰 백 백 / 涅 죽을 녈 녈 / 緇 검을 치 치 / 吾 자기 오 오

豈 어찌 기 기 / 匏 박 포 포 / 瓜 오이 과 과 / 哉 비로소 재 재

焉 어찌 언 언 / 能 능할 능 능 / 繫 맬 계 계 / 食 밥 식 식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